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 휴면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속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학번		비고 외국인, 편입생, 만학도, 장애학생 등 경우만 작성
이름	김**	연락처		

제목	언어 수업을 통해 발전하는 나, 그리고 미래			
교과목	언어의 이해		담당 교수명	양미애 교수님
구분	교양			
<p>처음, <언어의 이해>라는 강의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추천으로 수강하게 되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앞으로의 언어의 이해라는 과목은 어떤 형식으로, 과제는 조별과제로 각각 단원을 맡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중간, 기말고사와 과제, 출석의 성적비율 등을 설명해주셨고, 인상 깊었던 점은 교수님께서 본인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하신 부분이 수업 분위기는 왠지 무겁지 않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약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조원을 짜 주셨고, 책으로 수업하였다. 언어를 공부하면서 기본이 되는 언어의 출발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언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국어를 배워왔다. 하지만 나는 언어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조차 없었던 것 같다. 언어와 의사소통은 확실히 다른 부류였고, 한 단어에 대한 의미와 나라마다 다른 표기방법, 그리고 그 나라 언어와 뜻 등등은 내가 생각했던 한 분류가 아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 흥미롭기도 했고 관심이 갔다. 양미애 교수님의 수업은 대체로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필기 내용을 따로 칠판에 적어 주셨고 시간도 주셨다. 항상 필기하느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따로 필기할 시간도 이었고 부분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다.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언어학이었지만, 쉽게 이해가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해주셔서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p> <p>모두가 똑같이 이 과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이 듣는 수업에서 과연 내가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다. 친구가 추천해주었던 강의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추천해주는 좋은 강의였기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학 수업과는 달리 교수님의 말투나 제스처가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고 수업내용은 우리가 항상 직접 쓰는 언어의 내용에 대해 배움에 대해 재미있었다. 중간고사는 언어의 기원부터 역사,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교과서 내용의 빈칸을 채우는, 간단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빈칸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작은 빈칸 하나하나 놓칠 수 없어서 수업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을 체크하고 A4용지에 처음부터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며 외웠다. 우리가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쉽기도 했고 새롭게 알게된 내용도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알아가는데 재미있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준비했고, 정리한 내용을 30번 이상은 꼭 보고 계속 상기시키면서 공부했고, 예습은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맞춰 따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간고사가 끝났고 조별과제를 진행했다. 주제는 '통신언어' 로 쉽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발표해야했다. 우리가 쓰는 통신언어는 무엇이고, 통신언어에는 비속어, 은어, 줄임말, 등이 있</p>				

고 요즘에 쓰는 유행어나 사용양상, 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장점과 단점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지식을 검비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했다. 그렇게 3주간에 걸쳐 9개의 조가 발표가 끝났고 교수님은 각 조마다 칭찬과 피드백을 해주셨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준비했다. 기말고사 내용은 언어의 문법을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있었고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엔 문장에 대해서 배웠다. 처음 큰 틀을 잡고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배우다 보니 쉽게 공부했던 것 같다. 중간중간에 언어에 관한 스토리도 나와서 재미있었다. 그렇게 기말고사를 보았다. 나는 내용이 쉽다고 느껴져서 점수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중간고사도 어렵지 않게 보았지만 정확한 점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언어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느낀 점은 내가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느낀 수업과는 많이 달랐다. 재미도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한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고, 중간에 우리보다 많이 살아오신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도 가끔 해주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도 마음에 너무 와닿았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배운 느낌이었다. 수업이 재미있고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수업은 처음이었다. 물론 그 전의 수업이 별로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수업, 그리고 미래가 이 수업과 굉장히 닮아있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애매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은 진정한 '나' 를 깨달은 것 같아 좋았다. 그것에 대해 맞추려고 하지 않고, 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성적이 나왔고 나는 A+ 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열심히 한 나의 노력과 실천이 와닿은 순간이었다. 문득 나도 양미애 교수님을 보며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다.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목표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글을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이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나는 전에 항상 뭐든지 부정적이고 실패할 것 같은 마음으로 늘 시작했었다.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며 내 자신을 갇아먹고 있었다. 이런 수업이 나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니었을까? 조선대학교를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또한 양미애 교수님의 다른 수업도 찾아 들을 것 같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다. 아니, 다른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다짐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진정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정신티어링포인트가 아닐까싶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지치고 힘들 때, 생각의 정확이 필요할 때 다시 이 글을 읽어볼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1 월 13 일

제출자:___김**___(김수정 인)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